

기아차, 멕시코에 1조원 규모 공장 신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차질

다음달 착공 2016년부터 소형차 연 30만대 생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신규시장 개척 불가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 해외공장을 신설하기로 확정하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 자동차산업의 핵심인 기아차가 해외에서 생산물량을 늘리게 되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능력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7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 시티 연방전략위원회 기술박물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에보 레온주(NL)와 멕시코 현지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멕시코 공장은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지역에 부흥협력사 부지를 포함한 500ha(151만평) 부지에 10억 달러(약 1조원)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기아차는 다음달 말 착공에 들어가 2016년부터 소형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장이 지어지면 기아차의 첫 번째 남미지역 공장이자, 여섯 번째 해외공장이 된다. 공장이 완공되면 기아차는 국내 169만대, 해외 168만대 등 총 337만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글로벌 생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시장 개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광주 자동차 100%를 넘어서는 등 포화 상태에 달한다. 미국과 가까운 입지 조건, 낮은 인건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기아차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은 북미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점도 멕시코에 공장을 신설하게 된 이유다.

멕시코 공장 신설은 광주시 입장으로선 비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최근 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의 중추인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량 증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반 조성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완성차 생산물량이 정체되면 협력업체는 물론 관련산업 확충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해외공장 건설을 강제할 막을 방법은 없다. 아직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사업이 시작 단계이니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최근 국내 제조업 공동화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해외 진출한 제조업체의 유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차후 기아차 쪽에 국내 투자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프레스와 용접 로봇, 운반 및 검사 설비 등 부품협력사를 포함해 전체 설비 투자의 70% 가량을 국내 설비 수출로 충당하고, 국내 생산 부품의 현지 공장 수출을 위해 국내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의 멕시코 동반진출 길도 열려 지역 고용 창출 효과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5.76 (+0.83) 금리 2.53%
- ▲ 코스닥 570.24 (+3.01) 환율 1014.40원

쌀소비 급감 ... 벼 재배면적 사상 최저

광주·전남 1128ha 줄어 고추재배 면적도 크게 감소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재배면적이 1128ha가 줄어드는 등 벼 재배면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재배농가도 줄어드는 때문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벼·고추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81만5506ha로 지난해의 83만2625ha보다 1만7119ha(2.1%)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현재 통계 기준을 도입한 1975년 121만8012ha 이후 최저치로 당보다 3분의 1 줄어든 수준이다. 벼 재배면적은 2005년 97만9717ha로 처음 100만ha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

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품목별로 논벼 재배면적은 81만4334ha로 지난 1년간 2.0%, 밭벼는 1172ha로 7.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여전히 전남(16만9585ha)이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14만8684ha), 전북(12만4089ha), 경북(10만6832ha) 순이다.

고추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감자보다도 고추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고추 재배면적은 3만6120ha로 지난해의 4만5360ha보다 20.4% 감소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2128ha(23.5%)나 대폭 줄었다. 앞선 2년 연속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고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7월 신설법인 월간 첫 8000개 돌파

광주 1.2% ↓ 전남 32% ↑

40~50대의 창업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7월 새로 생긴 법인이 월간 기준 최초로 8000개를 돌파했다. 광주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고, 전남은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이 28일 내놓은 ‘2014년 7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지역 신설법인 수는 254개로 지난해 같은 달(257개)보다 1.2%(3개) 줄었다. 반면, 전남은 243개로 전년 동기(184개)보다 32.1%(59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812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7140개)보다 13.9%(989개) 증가하며 월간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 8000개를 돌파했다. 법인 설립자의 연령대별로는 40대(3181개·39.1%)와 50대(2145개·26.4%)의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30대(1784개·21.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40~50대의 법인 신설이 각각 371개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업종별로 보면 증가 규모 측면에서는 도소매업(243개)과 부동산업(127개)이, 증가율 측면에서는 농·임·광업(110.9%)과 하수·폐기물처리업(61.0%), 숙박·음식점업(57.8%) 등이 주도했다. 자본금별로는 1억~5억원 이하(24.1%)가 크게 증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은 ‘光LED론’ ‘대박개인택시시장님대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LED조명 교체자금 지원을 위한 공익형 기업대출 ‘光LED론’과 개인택시사업자의 생활안정 지원 상품 ‘대박개인택시시장님대출’을 각각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光LED론’은 상가나 공장 등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부정책 공익형 상품으로, LED조명을 교체하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LED조명 설치자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유무에 따라 최저 3.33%까지 적용되며, 광주은행 신용카

드로 LED설치비용을 500만원 이상 결제하면 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대박개인택시시장님대출’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상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연계한 상품으로 보증료는 은행에서 부담한다. 대출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신용카드나 자동차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최저 5.0% 수준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중기전문 흡소핑 ‘흡앤소핑’ 진도 특산물 판매 나선다

중소기업제품 전문 흡소핑 채널인 ‘흡앤소핑’이 중소기업중앙회, 진도군과 함께 세월호 참사 여파를 겪고 있는 진도지역 특산물 판매에 나선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흡앤소핑은 오는 9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진도 특산물인 울금과 흑미, 멸치 등 3종류의 농수산물 제품을 편성하고 각 상품별로 40분씩 릴레이 무료 판매방송을 실시한다.

방송 편성된 울금은 생강과 식물로, 치매예방과 간 해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진도 간척지 토양에서 자라 무기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흑미와 담백한 맛을 내는 재래생선방식의 멸치 역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추석 앞두고 출하 기다리는 사과·배

추석을 10여일 앞둔 28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산물시장 청과동에 출하를 기다리는 사과, 배 등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약간 오름세

내달 1~4일 장보기 효과적... 4인 전통시장 가격 18만7000원

올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는 이른 추석 탓에 지난해 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같은 품목이라도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알뜰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농축산물 가격 추이

와 작황 비축물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추석 제수용 사과와 배는 9월2일에서 4일 사이에 사는 게 좋다. 이 시기엔 청과 도매시장의 추석연휴 휴무를 앞두고 생산지에서 과일이 집중 출하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선물용 수요 집중

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용(18만7000원)이 대형마트(26만9000원)보다 8만2000원 썼다. 2주전과 비교하면 각각 3.5%와 1.9%가 하락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가격이 더 저렴한 품목도 있다. 무의 경우 전통시장에서는 100g에 평균 86원했지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69원에 팔리고 있다. 곳감도 대형마트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지난해 감 생산량이 30%가량 줄어 올해는 곳감의 산지 가격이 10% 올랐지만 대형마트들이 미리 저장해 둔 물량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제수용품 가격은 대체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싼 편이다. aT가 지난 27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총 41곳을 대상으로 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교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0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함)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